



豚子가라사대...

돼지는 무엇으로 사는가?



황윤재 팀장
영동양돈농협 수의팀

약 두 달 전 조합원 농장으로부터 한 통의 문의 전화를 받았습니 다. 대뜸 임신돈에게 포유모돈 사료를 먹여도 좋으냐는 질문이었지요.

그게 불가능하면 영양제를 듬뿍 첨가해야 하니 좋은 영양제를 알려 달라더군요. 물론 임신돈이 새끼를 가지고 있는 기간 중에 포유돈 사료를 먹었다고 해서 임신하다말고 새끼를 낳는 다거나 난데없이 젖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영양제 등도 적절하게만 쓴다면야 무슨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만 그 농장의 임신돈에 어떤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농장에 가 보았습니다.

임신돈 사료가 너무 나쁘다?

그곳은 모돈이 200여두 되는 일괄 사육농장이었는데 농장주는 비교적 성실하고 양돈에 애착이 많은 분이었지만 2~3년 전에 연속해서 수해를 겪은 탓에 한동안 농장의 틀을 다시 잡느라고 고생이 많이 하고 있는 중이지요.

문제가 있다면 임신사에 들어가 보았더니 상당수 임신돈들의 체형이 소말리아 난민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산차가 6산이 넘는 노산돈들이 적지 않았습니 다만 한창 물이 오른 3~5산차 임신돈들에서도 심하게 마른 체형이 보이는 걸로 보아서는 단순히 노산 탓만은 아닌 게 분명하였지요. 농장주는 또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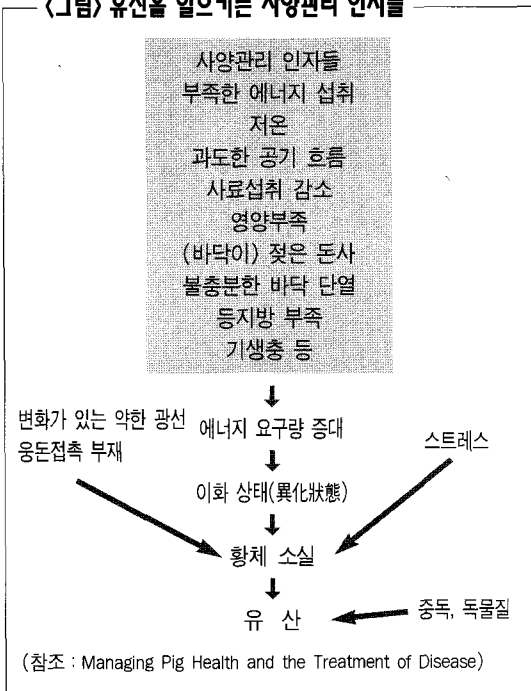
에 사료가 나빠져서 그렇다고 하면서 모 사료회사를 맹비난하였습니 다만 그 옆에는 같은 사료를 비슷한 양만큼 먹고도 체형이 괜찮은 임신돈들도 많은 걸 봐서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군요.

실제로 사료의 기호성이나 외관(실상 외관을 봐서 드러나는 건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똥의 상태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임신사의 자동 급이기 라인을 보면서 사료급이 관리는 누가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담당 관리자가 한다는 대답이었지만 어쩐지 자신이 없어 보이더군요. 급이라인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만 사료량을 조절하는 플라스틱 통에 달린 손잡이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몇 주간은 사료량을 조절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임신기간별로 하루에 몇kg씩 사료를 주라는 얘기는 양돈관련 책자에 흔히 나오지만 중요한 건 개체의 몸 상태(BCS)에 따라서 이런 원칙은 적절하게 가감되어 지켜져야 하는데 이 농장의 경우는 상당기간 동안 임신돈에게 그들의 임신기간이나 체형과는 무관하게 항상 같은 양의 사료가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한 관리방식은 대기모돈과 분만사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모돈은 체형이 형편없이 말

〈그림〉 유산을 일으키는 사양관리 인자들



라 있었고 분만사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는데 이견 농장주의 말과는 달리 어떤 소모성 질병이나 사료의 품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양돈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이 농장의 또 다른 문제로 유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번식상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번식성적이 나쁜 농장들에서 일부 그렇듯 이 농장주도 이러한 유산 등의 문제를 파보바이러스와 같은 특정한 질병 탓으로 돌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산 한 가지만 보더라도 파보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유산은 매우 드물 뿐더러 유산의 원인으로는 감염성 요인보다는 사양관리상의 문제나 환경 문제로 오는 비감염성 요인으로 인한 것이 오히려 훨씬 크다 할 수 있지요. 이 농장의 경우는 특히 사료관리(영양관리)를 포함한 사양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이를 알기 쉽게 도표로 그리면 〈그림〉과 같습니다.

이렇듯 양돈장의 제반 흐름은 마치 정교한 톱니바퀴의 운행과 같아서 관리상의 허술한 부분은 양돈장 전반의 생산성적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나쁜 결과로 증명되게 되는데, 이 농장처럼 분만사 등에서 세심하지 않은 사료관리가 체형은 물론, 유산, 재귀발정 지연, 무유증, 포유자돈의 사고율 증가, 이유자돈의 사고율 증가 같은 소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빈곤의 악순환'과 같은 사이클을 반복시키는 것이지요.

좋은 사료, 좋은 약 이전에 좋은 손길을...

대부분의 전업농장에서 번식돈에게 그 번식 단계에 맞추어서 어떻게 사료를 주어야 되는지에 대해 적어도 생각으로는 흰하게 알고 들 있지요. 문제는 실천인데 위의 농장에서라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료를 메뉴얼대로 주지 못한 경우입니다. 농장에 관리자의 숙련도가 낮을수록 현황판을 최대한 이용해야겠지요. 요즘은 현황판에 주간별 사료 급여량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해놓았으니 개체의 번식 단계별 사료량을 기록해 놓고 그 시기에 따라 사료를 증감하면 되겠네요.

물론 농장주와 관리자 간에 번식돈의 체형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놓는 게 우선 중요하겠지요. 또한 요즘처럼 따뜻한 5월이면 겨울철과는 사료이용성이 다르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개체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위 농장의 경우엔 이런저런 보완사항을 정비하고 몇 달 지나니 돼지 때깔이 달라졌더군요. 아마 사료나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리자의 따뜻한 손길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양돈**